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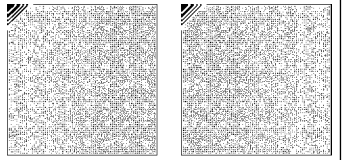


#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10월 269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향상 다짐



**12 특집 I**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현장스케치



**13 특집 II**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현장스케치



**14 인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박준형 · 이선수 부부



##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

지체장애인체육발전 및 장애인체육 저변확대에 매진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가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8일,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체)가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립수순에 들어갔다.

지장체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는 이날 2015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임원 및 회원 1만여 명과 함께 지장체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에 이어 정관제정, 지장체의 회장 및 임원 구성, 2015년과 2016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지장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체육의 목적과 의미는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관심과 지원은 비장애인

분야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장체 창립을 통해 지체장애인체육과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장체 설립의 의미를 전했다.

설립취지문에서는 “우리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할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지체장애인체육단체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각종 조사연구와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 장애인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며 지장체가 장애인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지장체 정관에는 지체장애인 체육활성화사업, 지체장애인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지체장애인 체육 및 경기시설 설치와 운영, 지체장애인 체육정책 및 경기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 지체장애인스포츠단체와의 국제교류, 지체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사업,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장체는 중앙단체 설립을 필두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지체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지체장애인체육회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동호회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지체장애인 체육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반토막 난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 촉구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유영희, 이하 여장연)과 장애계 활동가들이 10월 13일 국회 앞에서 반토막 난 여성장애인 복지예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2016년 통합할 것을 결정했다. 단, 통합 시 기존 사업이 축소되지 않게 하라고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맞춰 2016년도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으로 26억원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중 11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14억 3,700만 원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던 전국 31개소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운영하던 전국 22개소

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3분의 2가 장애인인 전국의 어울림센터 종사자 66명과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 이용자 1만 8112명은 갈 곳을 잃는다.

이에 여장연 유영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사·중복 사업정비라는 미명하에 최악자종인 여성장애인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장애인의 사업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복지 후퇴”라며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방향이 사회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장협, 모범 중증장애인 배우자 선정

## 박준형 씨 외 14명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 수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중증장애인 부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장협은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모범 중증장애인 부부 37쌍을 초청해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장애인 배우자를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온 15명의 중증장애인 배우자가 표창장을 받았다.

대회 최고상인 '장한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지체장애인 1급인 박준형(49)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서는 자신의 중증장애에도 뇌병변 2급 장애인인 부인과 1남 1녀를 둔 가장으로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 온 박 씨의 사연이 소개돼 감동을 전했다.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생계활동 이외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을 지속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요원으로 일하며 지역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터닝포인트를 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나 같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곳이 사는 한편 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순식·김대영·김남수·박운조 씨가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표창)’

을, 최윤이·전덕출 씨가 ‘자립상(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양순자·유태순·이승연 씨는 가화상(여성가족부장관상), 이영자·조은하·안성인·이연희·조수남 씨는 ‘특별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표창)’을 수상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부부상’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다. 자신보다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중증장애인 부부들의 사연이 우리 사회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회 참가자들은 마음껏 웃으며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한편 서울의 명소 N서울타워 전망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13면에 계속〉

##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제공

### 인사혁신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약 체결

국가직 공무원 김만진(40, 가명) 씨. 시각장애인인 그는 장애로 인해 업무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그때마다 모니터의 글자를 확대해 주는 확대독서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장 생활이 앞으로는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공무원

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10월 1일 공단 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TIP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 지원 서비스.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이 있다.

## 복지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추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유형 입법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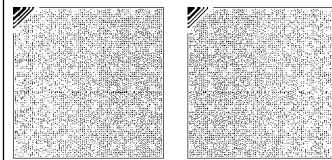
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

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도 함께 유형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장협,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시작

## 전국 장애인인권위원들, 장애인 인권향상 다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2015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작했다.

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차에 걸쳐 이뤄진다.

제1차 교육은 9월 16~17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수도권 장애인인권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며, "장애



지장협이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의 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그렇기에 세계 보편적 권리로써 정당

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

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의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중추적 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장애인인권위원들을 독려했다.

그밖에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최진 사무관이 '장애와 차별'을, 지장협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이 '인권의 관점에서 본 편의증진법'을 강연했다.

이어서 22~23일에는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충청권 장애인인권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지장협은 10월에 호남·제주, 영남 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3, 4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1등 했으니 이제 취업 할래요”

###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4일간의 열전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자기기 직종에서 금상을 받은 최정운(21세, 청각장애 2급) 씨.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자기기 분야를 훈련받았다. 청각장애가 있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수업에 배치된 수화통역사의 도움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겨냈다. 최 씨는 올해 7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자기기 직종에서 금상을 차지한 후 지방의 ‘1등’들이 모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 씨의 목표는 훈련이 끝나는 10월 이후 전공을 살려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다. 최 씨는 “전국 1등이 된 만큼 취업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의 장애인 기능축제,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및 경기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됐으며, 웹마스터 등 총 35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338명이 참

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2016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16명이 참여해 시연경기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대회 중에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채용박람회’가 함께 열렸다. 박람회에는 영진 LCD 등 50개 구인 업체와 구직 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폐회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제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이 수상자를 시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5연패 국가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며 “기능 장애인들의 실력이 대회만이 아닌 일터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1회 대회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2016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UN, 장애 포함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채택

### 향후 15년간 전 세계 사회개발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지표

장애 의제가 포함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UN뉴욕 본부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SDGs는 지난 15년을 이끌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모든 국가의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SDGs는 빈곤 종식과 기아 해

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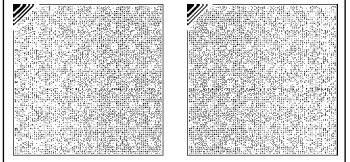
이중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목표 4.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의 기회 증진 ▲목표 8.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생

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 10. 국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7. 이행수단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재확성화다.

국내외 장애계는 이번에 선포된 SDGs는 장애이슈가 누락됐던 MDGs와는 달리 주요 개발목표에 장애이슈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 강화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 포함 SDGs 채택을 알리고 있는 UN Enable 홈페이지. ©UN Enable



#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 전국 지장협 사무실에서 신청·접수



지장협과 휴먼케어가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보급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중앙회장 김광환)는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사인 ㈜휴먼케어와 함께 9월 24일부터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시작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처가 수도권에 소재해 그간 전국적인 보급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장협은 전국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게이트에서 직접 할인카드를 이용해 감면 할인을 받거나,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구입하여 사용해야만 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5만 대

한정으로 77%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및 판매처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정가는 17만 7,000원이나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1~3급 장애인에게는 4만 8,000원, 4~6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7만 8,000원에 판매한다. 이번 보급사업과 관련한 단말기 차액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업무협약을 추진한 지장협 편 의증진국 홍현근 국장은 “지문 인식 기능을 부착한 기존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이 고가인 이유로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 단말기 판매처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 및 판매사인 ㈜휴먼케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장협 전국 17개 시·도 협회 및 230개 시·군·구 지회에서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신청·접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휴먼케어 콜센터(☎1688-3017)로 문의하면 된다.

## 제10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

###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 등 시상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는 ‘제10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를 10월 1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일상의 삶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척수장애인들과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시상해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2006년부터 매년 10월 1일 ‘척수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기념대회에서는 각 계층에서 척수장애

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상인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명수 과장이 선정됐다. 김 과장은 청소년기 체육시간에 불의의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됐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취업해 15년 6개월간 근무 중이다. 그는 그동안 장애인 취업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밖에 자랑스러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한요순 씨가, 자랑스러운 리더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양문숙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장이 수상했고, 자랑스러운 활동가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정락현 사람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받았다. 또 자랑스러운 어버이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문명순 씨가, 자랑스러운 직장인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심영숙 씨가 각각 수상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 영광을 누렸다.

이 자리에는 제1회 척수장애인상을 받은 휠체어 무용가 김용우 씨의 축하공연과, 척수장애인 명창인 허정 씨의 엔딩공연으로 기념대회 참석자들에게 10주년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

회가 10월 1일로 지정된 이유는 10월 1일을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했을 때 ‘1001’이 되는데, 양 끝의 ‘1’자는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의 두 팔을, 가운데의 두 ‘0’자는 휠체어의 양 바퀴를 각각 상징하기 때문이다.

## 장애인 대여 렌터카, 장애인표지 발급해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단기 대여한 렌터카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에 목적이 있다.

보행이 힘든 장애인들은 여행을 가거나 자동차 수리 등으

로 잠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단기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현재 임대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은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를 받거나 임대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이 같이 표지 발급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자동차 기준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현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 개최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정책 진단과 한국 정부와 장애계 역할 모색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장 조흥식)는 9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재활대회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인천전략 선포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지난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심사 등을 계기로 국제장애정책에 대한 한국장애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열린 토론이 오갔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 전경.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의 의미

UN장애인권리위원회 한반도 국제대학원 김형식 교수는 기초 강연으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과 한국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제2차 아·태 장애 10년(2002~2012)의 성과를 최종 평가하기 위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고, 한국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을 이끌어 갈 당사국이 되었다고 상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재활협회가 수행한 연구과제 ‘Post-BMF:아시아-태평양지

역의 CRPD 이행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핵심요소 3가지가 있었다. 이는 정치적 주도성, 경제적 능력과 이행의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공동기금 설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위한 선행요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RPD 이행이 요구하는 장애의 주류화를 근간으로 하는 법체계 개정 ▲법체계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 정비 ▲CRPD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 당사자 단체 모니터링과 평가 적극 참여 ▲CRPD 이행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로 총 5가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이란 인권에 기반해 CRPD의 원칙을 이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장치”라며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UN CRPD 심의에 따른 이행 현황과 과제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정효균 팀장은 ‘UN CRPD 심의에 따른 이행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UN CRPD 관련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심의 시 국내법과 협약의 부합 정도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 권고를 해왔다.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측은 인권위가 국가보고서 심의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가 협약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한국정부에 지원을 권고했다.

향후 인권위는 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책 권고 시 CRPD 조문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해 협약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부에서는 장애인복지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해당 분과별 이슈들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각 세션별로 ‘장애인 빈곤 탈출과 고용제도 연구’, ‘장애포괄적 국가개발 사례’,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발전 방안’ 등 총 8개 토론이 펼쳐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당신의 숨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아들아 미안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숨 쉬는 권리조차 못 지켜주는구나.’, ‘거꾸로 가는 복지제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국회 앞에 펼쳐졌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연대(이하 장애인생존

## “숨쉬는 데도 돈을 내야 하는가”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호흡보조기 자부담 폐지 촉구

권연대)’는 9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흡보조기 자부담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통휠체어를 탄 70여 명의 장애인은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중 굵은 호스가 연결된 호흡보조기를 착용한 채 고통스럽게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도 여럿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11종) 1800여 명에게 대당 2,000만 원 수준이라 구매하기 어려운 호흡보조기 임대료 전액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 질환에 속하지 않아 매월 임대료 70만 원가량을 부담하는 중증척수장애인, 뇌척수질환, 심장·폐질환자 500여 명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임대료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하려

는 방침을 세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는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해 그동안 전액을 지원받았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내년부터 한 달에 7만 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환자 가족의 경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300% 미만, 재산기준 300% 미만이면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900여 명의 대상자가 자부담을 지게 됐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185만 원 이상인 900여 명이 고소득 가구로 규정돼 10%를 부담해야 한다”며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지원받지 못하던 다른 환자를 돕겠다는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담뱃값으로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뤄졌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담배 세수가 1조 2,1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원을 끊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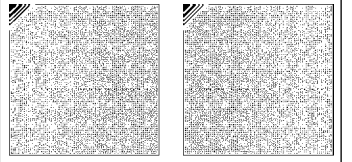
장애인생존권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호흡보조기 자부담 시행 폐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지원 재산 소득기준 폐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사업 확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10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호흡보조기 자부담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이 끝나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 ‘장애’ 정의부터 편의제공 등 변화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모색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김재왕 변호사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밝힌 장애 개념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밝힌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전경.

이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용과 교육 영역 등에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 제공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문화향유권의 경우 날이 갈수록 장애인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편의제공 환경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보완점 등을 추가로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 고민이 부족했거나 제정 이후 변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도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주거 활동보조,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법 시행 7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장애인 차별 관련 문제는 꾸준히

준히 들려오고, 시행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차법의 주무 부처와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는 기관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법이지만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이나 권고 등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강완식 실장은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나 보완에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해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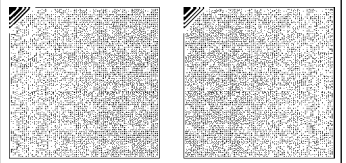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3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최초 1회 인증)
- 4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릅니다.
-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
- 6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신고위치 수정가능)
-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 개최

## 장애인 동거부부 22쌍 합동결혼식 올려

제24회 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 및 제15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곤, 이하 전남지장협)는 10월 13일, 200만 전남도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장애인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도 진행했다.

행사 1부로 진행된 한마음축제에서는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활동한 장애인당사자에게 도지사·국회의원·무안군수·한



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서 장애인 동거부부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장애인학생에게 도교육감상과 장학생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전남 22개 시·군의 장애인부부 22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실시했다. CBS최윤덕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자리에 모인 청중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행사 2부는 KBS 신조환 리포터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장기자랑 및 시상식, 행운추첨 등이 펼쳐졌다.

장재곤 협회장은 “오늘 수상한 장애인당사자들과 결혼식을 올린 장애인부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전남지장협은 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지장협이 주최·주관하였으며, 전라남도과 무안군이 후원했다. 해군3함대 사령부 군악대가 공연을 지원했고, 장애인부부들의 신혼여행을 위해 무안경찰서가 길을 인솔했다.

## 경북여성자립지원센터 보수교육

### 인권지킴이단 발대식 열려



경북지장협 여성자립지원센터가 보수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는 9월 11일 안동 유교랜드에서 3차 여성자립지원센터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영남사이버대학 사

회복지학과 임은자 교수가 ‘자립의 이해와 행복의 선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자 교수는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자립과 독립의 차이를 설명하며 여성활동가들의

활동 비전으로 자립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자립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심리적 자립을 강조하며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협회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우리 센터 여성활동가들이 먼저 배우고 터득해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일선에 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과 함께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진행하며 경북 지역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 침해 예방 활동을 다짐했다.

## 가스공사, 인천 연수구 장애인 후원

### 라면 300박스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전달



한국가스공사인천기지본부가 연수구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가스공사인천기지본부는 9월 17일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지회장 정인식, 이하 연수구지회)에 330만 원을 후원했다.

연수구지회는 후원금으로 라면 20개짜리 300박스를 구입해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들

에게 전달했다.

정인식 지회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수구지회는 소외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지회, 장애인가정에 후원품 전달

### 군위축협이 지속적인 장애인 후원 훈훈

군위축협(조합장 김진열)의 지속적인 장애인 후원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011년부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지회장 김정기, 이하 군위군지회)에 격년제로 후원을 하고 있는 군위축협은 지난 9월 3일 ‘2015 군위 축

산인 한마음 대축제’에서 425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교환권을 지역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내 놓았다.

김정기 지회장은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하는 군위축협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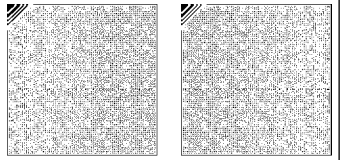
통해 후원 교류를 활발하게 해 따뜻한 군위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군위군지회는 각 지역 분회장 회의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85명을 선정해 후원받은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을 받은 권종식 씨는 “필요한 농축산물 구입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받게 돼 기쁘다”며 “군위축협과 군위군지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위축협이 ‘2015 군위 축산인 한마음 대축제’에서 군위군지회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 충남 성우종 후원회장, 명절맞이 후원

## 1500가구에 5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 전달



성우종 후원회장이 이견휘 협회장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평소 지역 저소득 장애인 대상 꾸준한 후원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이사가 9월 21일,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견휘, 이하 충남지장협)에 명절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을 지원받은 충남지장협은 산하 15개 시·군지회를 통해 저소득장애인 1500가구에 5,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1500세트와 조미김 1500박스를 전달

했다.

충남지장협 후원회장이기도 한 성우종 대표이사는 도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대회는 물론, 2015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에도 1억 원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47쌍의 혼례를 도왔다.

한편 이견휘 협회장은 성우종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오지마을 찾아 숲속음악회

### 울산지장협, 소외된 장애인 대상 문화나눔

지난 9월 14일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태희, 이하 울산지장협)는 울주군 신불산 휴양림에서 '제1회 배넛골 숲속음악회'를 개최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마을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 장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태희 협회장은 "음악회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이기에 더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음악회를 열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



울산지장협이 개최한 '제1회 배넛골 숲속음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D지구 화랑라이온스클럽(회장 정한진)은 1년 무료급식비로 1000만 원을 후원했고, 울산지장협 측은 음악회에 앞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

했다.

한편 울산지장협은 협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울산의료기 광장환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다.

##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실천대회

### 여성자립지원센터 단합 및 역사인식 제고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는 여성활동가의 단합을 위해 여성자립지원실천대회를 실시했다.

10월 7일 경주에 모인 여성자립지원센터 활동가들은 '2015 장애인 행복 건강걷기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경주 첨성대 및 계림숲, 경주실�크로드 엑스포까지 관람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여성자립지원실천대회는 여성자립지원센터 활동가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년의 고도가 살아 숨 쉬는

건축양식과 유물·유적지를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경주 실�크로드 세계문화 엑스포 관람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하 센터장은 "세계적인 행사 기간인 '실�크로드 경주 2015'에 맞춰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알차게 여성자립실천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성자립지원센터의 단합과 함께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봉사

### 포항시지회 구룡포·대보 분회사무실 리모델링 작업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이 포항시지회 구룡포·대보 분회사무실에서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회장 김영대)은

지난 9월 20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

경목, 이하 포항시지회) 구룡포·대보분회를 찾아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해맞이로타리클럽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돕겠다 나서며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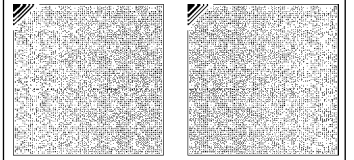
이날 작업은 구룡포·대보분회 컨테이너 사무실에 벗겨진 페인트 작업부터 외관정비, 실내도배·장판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김영대 회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

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포항시지회와 협력해 지역의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봉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은 지난 2005년 12월 창립한 이래로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포항시지회와는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

## 장애인복지관 임직원 교류와 화합의 자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이 화합을 도모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는 10월 17일 목포유달경기장에서 임직원 6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인 이사장배 제7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기관 및 직원들이 화합하고 지역 간



지장협 산하 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류를 강화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으로 몸을 풀 후 본격적으로 피구, 한궁, 미션 750m

계주 경기를 치렀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2위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3위는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차지했다. 아차상은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응원상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받았다. 한편 최우수선수로는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김미향 사회복지사가 선정돼 박수를 받았다.

올해 대회는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내년 대회는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할 예정이다.

## 처인장북-삼성물산 지역사회 환경정비

### 노후화된 마을회관 흑한기 대비 개보수 완비



처인장북과 삼성물산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수리했다.

지난 10월 14일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북)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영문1리 마을회관에서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이하 삼

성물산)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나눔프로젝트는 처인장북과 삼성물산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실내

외 도색작업과 환경정비, 흑한기 대비 창문 방풍비닐 부착, 조경 활동 등 전문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영문1리 정의수 이장은 "복지관과 삼성물산 직원들 덕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처인장북 정의철 관장은 "우리 복지관과 삼성물산 리조트 건설부문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진천장북, '빠담빠담 캠프'

###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유형별 장애체험 실시



진천장북이 진행한 '빠담빠담 캠프' 참가자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9월 24~25일 1박 2일간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2015 우리사랑통합캠프 '빠담빠담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유형별 장애체험, 도자기체험, 레고팔찌 만들기, 행복숲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명수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전한 문화여가생활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경 장애인들의 풍요로운 한가위

### 문경장북·관음공덕회 저소득 장애인에 명절음식 전달



문경장북 임직원과 관음공덕회 회원들이 명절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저소득 장애인들이 음식장만 걱정을 덜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9일 관내 밀반찬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49세

대에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한 명절음식을 제공했다.

한가위를 앞두고 신체적·정신적 제한을 가진 밀반찬 지원 장애인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으로 음식마련에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가운데 거주하는 신 모 씨는

"봉사자들이 정성껏 조리한 명절음식 덕분에 다가오는 추석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듯해 기쁘다"고 전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장북을 찾아 밀반찬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관 임직원과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 봉사회원을 격려했다.

한편 문경장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고, 조리가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매월 2회씩 밀반찬을 지원해 왔다. 그간 연인원 2297명에게 다양한 밀반찬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관음공덕회가 조리 및 배달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새마을문고, 김천장북에 도서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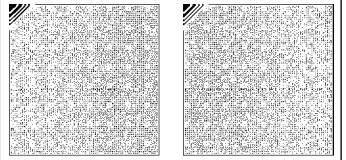
박선하 관장이 새마을문고의 도서 기증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김천시지부(회장 이점이, 이하 새마을문고)가 9월 16일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새마을문고를 찾아 도서 250여 권을 기증했다.

새마을문고 측은 "이번 도서 기증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장애인이 독서를 가까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하 관장은 "도서를 기증해 주신 새마을문고에 감사드리며, 이용자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MG손해보험, 북부장복에 사랑의 송편나눔

## 복지관 정원에 국화꽃 심어 가을정원 조성



MG손해보험이 북부장복에서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탈무드-

MG손해보험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북부장복)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의 마음에 촛불을 비추는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를 펼쳤다.

9월 17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MG손해보험 김상성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참가해 송편나눔과 식사보조, 화단정리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상성 대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각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편을 제공받은 장애인 김 모

씨는 “추석을 맞아 맛있는 송편을 먹으며 지역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MG손해보험과 북부장복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MG손해보험은 송편나눔에 이어 복지관 정원에 국화꽃을 심으며 가을정원을 조성했다.

북부장복 손영호 관장은 “MG손해보험 덕분에 복지관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난다”며 “이용고객과 임직원들에게 미소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 유성장복, 재가장애인 겨울나기 바자회

### 지역주민 600여 명 모여 기금마련 동참

재가장애인의 겨울나기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려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복)은 10월 15일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고 장애인 이용 고객과 지역주민 600여 명을 초대했다.

바자회는 먹을거리 및 아나바다 장터를 중심으로 건강체험, 물레체험, 비즈공예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핸드페인팅,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번 바자회는 유성구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한화대전사업장,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국민은행 대전 고객센터



유성장복이 재가장애인 겨울나기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터, (주)더리스, 연안애드, 상록수꽃집, 유성구보건소, 노은1·2·3동 주민센터, (주)한화갤러리아 임월드 등이 각종 물품을 후원했고 목동성당, 대한어머니회, 한국조폐공사, 유성구주부자원봉

사단, 신협부녀회, 하기초등학교 부녀회에서 크고 작은 손길로 바자회 진행을 지원했다.

유성장복 측은 이날 모인 기금을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겨울나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장애인 가족 함께 추석맞이

### 서산장복, ‘한가위 잔치’ 성료



‘한가위 잔치’에 참가한 장애인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준곤)은 9월 24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가족, 보호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잔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도 참석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잔치는 송편 빚기 대회 및 국악·가요 공연과 장애인 노래자랑 등을 통해 서

로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산지회에서 민요, 가요, 오카리나 축하공연을 했고, 서산농협, 서산축산농협, 서산시청은 물품을 후원했다. 태양이벤트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나누리봉사회는 장애인 가족들이 더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 낙동강 문화 창조의 동반자 약속

### 달성장복, 디아크문화관과 업무협약 체결



디아크문화관에서 장애인들이 ‘비누꽃 만들기’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달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과 워터웨이플러스 디아크문화관은

10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양 기관은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함양을 위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우선 관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홍보하는 한편, 복지관과 장기적인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아크문화관 측은 달성장복을 낙동강 문화 창조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전했다.

##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 하반기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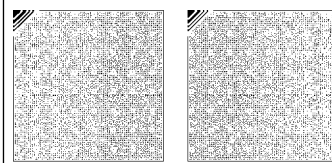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가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하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는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함께 9월 25일 영천시 강변체육공원에서 하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양 센터의 교류를 위해 각각의 이용고객을 섞어 팀을 나

뉘 경기를 진행했다. 색판뒤집기, 공던지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다졌다.

영천장복 측은 “게임의 승패에서 벗어나 두 기관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달구벌장복, '가족미션캠프' 성료

## 장애아동 가족의 관계향상을 위한 여행



'가족미션캠프' 참가자들이 칠곡나눔숲체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장복) 상담사례지원팀은 10월 3~4일 양일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의 지원으로 장애아동가족과 함께 칠곡나눔숲체원에서 가족 미션캠프를 실시했다.

가족미션캠프는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 훈련에 기반을 둔 장애아동 가족의 관계향상을 위한 역할코칭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소통! 소중한 우리가족, 통하는 공감여행'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도 돕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다. 달구벌장복 측은 양일간 참가 가족끼리 친밀감을 느끼며 건

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캠프에는 6가족과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복지관 직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캠프는 10월 3일 오후 2시에 캠프장소에 도착해 칠곡나눔숲체원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들으며 시작했다. 이후 가족보물찾기와 우리가족 공간 만들기 등을 통해 가족의 힘을 기르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요리경연대회, 장기자랑 등을 함께 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숲체험프로그램으로 3D퍼즐 만들기 진행해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가족 간에는 응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경험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캠프 담당자는 "참여한 가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오래도록 함께하며 서로 간의 자생력을 키우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2015 한마음 걷기대회 열려

### 괴산장복, 지역 장애인들과 편견 허무는 발걸음

지난 10월 14일 괴산을 동진천변 일원에서 '2015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장애인 가족, 참석 내빈,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괴산장복에 따르면 이날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건강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동진천변, 괴산대교 하천길, 수진교를 거쳐 돌아오는 총 2.2km구간을 걸으며 장애인식개선을 향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괴산장복이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2015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구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점심식사는 괴산 늘푸른식품의 후원으로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2부 어울림 한마당은 마술공연, 명랑운동

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정효선 관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홍성장복, 추억의 가을운동회



홍성장복 이용고객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가을운동회를 하고 있다.

홍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호현)이 장애인 이용고객과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추억속으로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10월 3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는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복천규 지회장, 홍성군장애인후원회 김명원 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운동회는 색깔막대, 파라슈트, 고리던지기, 점보스택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종목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성군 장애인후원회에서 경품을 후원했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IBK 참!좋은 사랑의 밥차를 지원했다.

## 의정부시의원과 함께 한 추석맞이

### 의정부장복 이용고객 250여 명 대상 명절 음식 나눔

지난 9월 24일 의정부시장에 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에서는 추석을 맞아 의정부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행사를 진행했다.

시의원 및 직원들은 삼계탕 재

료를 마련할 뿐 아니라 조리까지 담당하며 정성껏 봉사에 임했다. 이와 함께 종로떡집에서는 송편을 제공해 추석 분위기를 더욱 돋웠다.

의정부장복 측은 시의회와 종로떡집에서 후원한 음식을 장애

인 고객 250여 명에게 배식을 통해 나누었다.

배식에 참여한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들이 한가위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10월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현장 스케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기수단 입장.



우승을 차지한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심재철 국회의원의 축하.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의 축하.



경기도의회음악동호회의 축하공연.



수원어머니합창단의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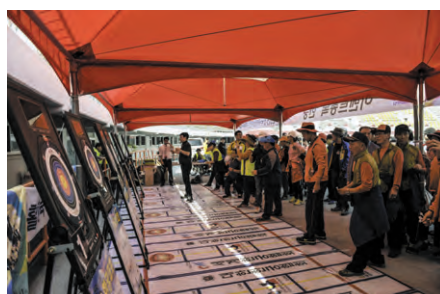
장애인 복지발전 유공자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유공자에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장표창 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



시범종목인 한궁 경기.



200m 휠체어릴레이 경기 중인 선수들.



플라잉디스크 생활체육 체험.

#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현장 스케치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수상자 기념 촬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김광환 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한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지립상(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손영호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가화상(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특별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수상자.



장한배우자상을 받은 박준형·이선수 부부가 사연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탐방으로 N서울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참가자들.



N서울타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한배우자상 수상 시기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 박준형 · 이선수 부부

### 터닝포인트1. 내 인생의 밑천, 친구

커피 한 잔과 음악을 들으며 나의 50년 인생을 되돌아본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6남매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가 마비됐고, 지체1급 장애인이 되었다.

8살이 되자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다. 아버지는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냈다. 아버지는 “너는 일반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네 인생의 밑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돌아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 내 주변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친구도 많다.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달려와 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여러 친구 중에서도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준 한 친구가 있다. 중학교 시절 난 내성적이었다. 그 친구는 내가 밝은 성격을 갖게 도와줬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체육시간에 교실에 앉아 뛰노는 친구들을 부럽게 바라보던 나를 업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의자를 마련한 다음 농구공을 넘겨주며 골대를 향해 공을 던져보라고 해줬다. 그뿐 아니라 내게 자신감을 가지라며 등에 업고 시내 한복판을 누볐다. 그때부터 내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고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게 다 42년간 함께한 친구 덕분이다.

### 터닝포인트2. 인생의 동반자와 결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수녀님의 주선으로 하와이에서 무료 수술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30년 전이었지만 미국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할 곳이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채 치마를 입고 다녀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엉망이었다. 1년간 치료를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애의 벽은 시작되었다.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서는 다니기 어려운 계단과 턱들이 여전했다. 잡히지 않는 마음을 애써 컨트롤하며 대학입시에 응시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헛헛한 마음으로 재활원에 입소했다. 그곳이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될 줄이야.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게 될 만큼 마음이 가는 여인을 만났다. 공부를 하면서도 그녀가 보고 싶고, 전화로 하루라도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았다.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추진했



박준형 · 이선수 부부

다. 먼저, 내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녀 오빠의 반대가 심했다. 장인어른께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이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득했다.

겨우 장인어른을 설득하자 이번엔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다. 아내도 뇌성마비 2급인데다 처가의 사정이 넉넉지 못해 혼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양가를 다니며 설득을 거듭한 끝에 어렵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예쁜 딸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 딸은 돌이 되었는데도 걸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가니 지적장애라는 말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이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지만 장애인 부모가 일을 하면서 장애 아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뱃속에 둘째가 있을 때, 큰 아이는 잠도 자지 않고 밤마다 경기를 일으켰다. 장애를 가진 우리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시설에 보내게 되었다. 그 아이는 6년 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도 첫째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

### 터닝포인트3. 절망의 늪에서 손을 잡아준 아내

우리 부부는 조그만 레코드가게를 열었다. 학교 입구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IMF와 함께 찾아온 불황은 우리 가게에도 영향을 미쳤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허탈한 시간을 보내다 주유소 총무부장 일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장애로 인해 주유소의 소소한 일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나는 이번엔 친구와 옷 할인매장을 시작했다. 친구와의 동업은 나를 더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내게 미루고 빠져나가며, 번 돈을 몰래 유흥비에 쓰고 있었다. 가게는 겉으로는 잘 되는 듯 보였으나 속은 전혀 아니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가게를 늘렸다. 점점 가게가 어려워지자 친구는 갑자기 손을 뗀고 난 빚더미에 올랐다. 그 때 아내의 뱃속에 셋째가 들어섰다. 만삭인 아내와 둘째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죽음도 생각할 정도였는데 벼랑 끝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는 본인도 장애인이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살아갈 테니 옆에만 있어달라고 했다. 그런 아내를 위해 용기를 냈다.

나는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팔다 남은 옷가지를 갖고 나가 노점을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럽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창피했지만, 주위에서 열심히 산다는 말에 용기가 생겼다. 사람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처음엔 많다고 느낀 물건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조금씩 돈이 모이니 재미있었다.

그러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장의 소개로 통발 일을 시작했다. 시작할 땐 많은 장애인이 모였지만 일이 힘들다 보니 하나둘 그만두고 우리 식구만 남았다. 손이 아프고 물집도 잡혀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열심히 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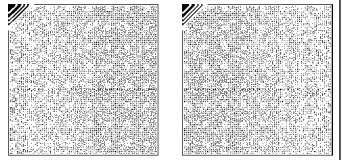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돈을 벌려면 힘든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번에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매달렸다.

추운 겨울, 손가락이 곱아도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인식교육을 하는 장애인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원서를 넣고 당당히 합격했다.

처음엔 떨리고 말도 더듬거리며 시작했다. 하지만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전문강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목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한편 알뜰하게 모아서 전셋집도 장만했다.

죽음이라는 극한에서 도전하는 인생으로 달라지도록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준 아내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곳곳이 살아갈 것이다. 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원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이 평등한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 사람 ‘人’이란 상형문자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며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 나는 오늘도 노력한다. 아, 행복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 욕창방지방석 등 4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 11월 15일부터 시행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이 확대 적용되고 기준금액 인상이 금년 11월 15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강심')를 개최,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과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 품목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위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급여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용 보조기구, 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

템 등 청각장애이용 보조기구 등의 급여적용 확대는 2016년에 관련단체 등과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는 품목은 가격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또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짧은 다리 보조기는 일체형(12만원)과 고정형(90도고도정형, 31만원), 크렌자크식(36만원)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된다.

발목관절보조기는 고정형과 90도고정형을 통합한 '짧은다리 급속형 보조기' (30만원)과 기존 크란자크식(35만원) 등 2종류로 지원한다.

원지팡이 등 기타 57개 품목

은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강심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금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급여확대로 약 178억원 재정부담 규모로 7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79개 품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7만 4000건에 총 342억원이 지급됐다.

### ◇급여 적용 확대 품목

품 목		기준액(원)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년
욕창예방방석		250,000	3년
지지위커	전방	50,000	3년
	후방	30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년

### ◇급여 세분화 품목 주요 내용

품 목	현행		개선	
	세부품목	금액(원)	세부품목	금액(원)
짧은다리보조기	-	120,000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은다리 급속형 보조기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 장애인당사자의 손길로 작은부분까지 배려한 휠체어! 휠라인이 만듭니다.

### 국내 유일의 휠체어 맞춤 제작업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주)휠라인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티타늄 활동형휠체어



고정식 활동형휠체어



FX활동형휠체어

#### 휠체어구입시 점검사항

☐ 휠체어가 튼튼하고 견고한가?  
(휠라인은 럭비선수용 휠체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 휠체어가 부드럽고 나의 몸처럼 잘 움직여 주는가?  
(휠라인의 댄스스포츠용 휠체어를 국내 유수의 프로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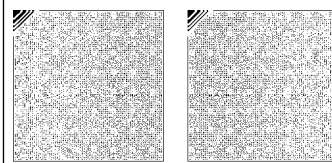
☐ 휠체어가 정교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가?  
(휠라인은 휠체어스포츠 9개 종목의 휠체어를 자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휠체어의 사후관리는 용이한가?  
(휠라인은 순수 국내기업으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 휠체어가 타고 싶은 디자인인가?  
(휠라인의 디자인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휠라인은 2007년 장애인력비휠체어 개발을 시작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휠체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활동형 휠체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휠체어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성료

## 미술, 연극 등 20여 개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예대회장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평창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이문태 이사장, 방귀희 대회장, 김충현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장애인들이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벽을 허무는 시간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이 된다”며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문화예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예대회장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장애인문화예술인들

이 매년 한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아주 다양한 형태로 축제에 하는 일본 방식을 도입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몸이 불편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끼를 발산하고 치

유하는 활동은 장애인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꼭 그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서울 종로구 혜화

동 대학로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참여하는 축제! 함께하는 축제! 나누는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진행됐다.

11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미술, 서예전시회, 미디어아트전, 연극공연, 인문학강의, 국제세미나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는 프린지공연과 부스행사, 키즈페스티벌, 장애인예술 직업박람회 등이 열렸다.

조직위원회 측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며 장애인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복지의 원동력을 형성하는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 문화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창단 이래 139회 공연

### 지역사회 넘어 전국으로 활동무대 확대 포부 밝혀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의 찾아가는 음악회.

‘충남관악단 희망울림’(단장 임대혁)이 2005년 창단 이후 노력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장애인 단원이 함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로서 자리매김하며 음악적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희망울림은 창단 이래 지난해까지 총 139회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 초청연주를 시작으로 공주시·계룡시 장애인의 날 행사 초청연주, 제16회 충청남도장애인합동결혼식 축하연주,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 및 시상식 축하연주 등 지역행사 초청연주를 6회 진행했다. 또 문화소의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순회연주 ‘찾아가는 음악회’(기초초등학교, 광풍중학교, 부창초등학교, 산양초등학교,

교, 대흥초등학교, 주포초등학교)와 지난 9월 9일 국립법무병원에서 진행된 ‘가슴으로 전하는 동행의 선율’ 공연 등 9월까지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창단 11년이 된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이 큰 어려움과 시행착오 없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협동과 조화를 강조하는 관악은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분야일뿐더러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의 장애인이 관악단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같이한 전문 강사진의 열정과 단원들의 노력과 땀이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에 담겨 있다.

현재 지역사회 내 유일한 장애인 관악단으로 자리 잡은 희망울림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활동무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꿈

을 품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편견을 뛰어 넘어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이 음악적 기량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관악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희망울림은 2015년 남은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향수사업 기획공연과 함께 지역행사 초청연주,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정기연주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희망울림 관계자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시작된 희망의 울림은 이제 점차 확산되어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에서 발생한 나비효과가 점차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원이 되고자하는 장애인이나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에 대한 문의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041-856-7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숫대문학 통권 100호 발간

### 장애인 예술 발전 기여...미술계 축하 나서



서양화가 김영빈의 염원 ©한국장애인 예술인협회

국내 유일 장애인문학지 숫대문학이 2015년 겨울호로 통권 100호를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화가들이 나섰다.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작가인 서양화가 김영빈은 가장 먼저 숫대 100개를 그린 서양화 <염원>을 숫대문학에 보냈다.

숫대문학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원로시인 故구상 선생의 사위인 판화작가 김의규는 서로 다르지만 행운이 맞닿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작품 <couplet-2행연구>로 숫대문학 100호의 역사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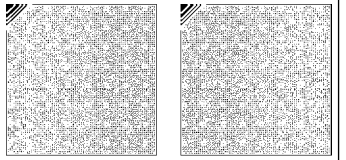
사고로 양쪽 팔이 절단돼 의수에 붓을 꽂고 그림을 그리는 수묵화가 석창우는 “행

복한 글터 숫대문학 백호, 아름다운 문학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라는 숫대문학 100호 휘호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 조각가 윤영호는 숫대문학의 성장을 <숫대가 족의 행복>이란 작품으로 만들어서 축하의 선물을 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목공예가 김윤숙은 숫대 시리즈 6으로 숫대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화해 숫대문학 100호 기념 갤러리에 싣는다.

숫대문학은 1991년 4월에 창간호를 낸 이래 단 한번의 결간 없이 25년 동안 발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1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된 바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열려

##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여명 참가...충남지장협 우승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좌식배구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축제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10월 8일 오전 11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전국 17개 시·도협회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수원시 제1부시장 김동근, 심재철·박광운·박원석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 등 내빈 60여명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회 발전을 힘쓴 이들에 대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감사패 수여식과 장애인 복지·장애인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줄다리기, 휠체어육상 200m릴레이, 스탠딩육상 400m릴레이, 좌식배구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고 시범종목으로 한궁 경기를 진행했다.

선의를 경쟁을 펼친 결과 종합 우승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공동 3위는 경기지체장애인협회와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돌아갔다. 화합상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응원상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모범상은 전남과 강원지체장애인협회가 받았다. 이날은 수원어머니합창단과 경기도의회 음악동아리 에이밴드의 공연,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내조정체험과 플라잉디스크 등 생활체육 체험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오위안 아태농아인대회 한국 4위

### 9일간의 열전...볼링 메달 15개로 효자종목 선전

대만 타오위안에서 9일간 열린 아·태농아인경기대회가 10월 11일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총 메달 수 28개(금5, 은12, 동11)로 종합 4위를 기록했다. 대회 1위는 대만, 2·3위는 각각 일본과 중국이 차지했다.

폐막식에는 APDSC(아시아태평양농아인스포츠연맹위원회) 모하메드 파가르 회장, CTSAD(대만농아인스포츠협회) 리 썬다 회

장, 타오위안 쉹 웬즈엔 시장 등을 비롯한 22개국 1000여 명의 관계자 및 선수단이 함께했다.

한국 선수단은 볼링에서 15개(금2, 은7, 동6)의 메달을 획득하며 참가종목 중 가장 많은 메달 수를 기록했다. 6개의 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은 남자 단식에서 우지수와 신경덕이 금메달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선수단 최연소 김서영은 이아현과 함께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축구 3·4위전에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연장전 승부차기 끝에 승리해,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기간 한국 선수단을 이끈 이종학 선수단장은 “다른 참가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농아인체육 선수들의 실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차기 농아인올림픽을 잘 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 ©대한장애인체육회

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차기 대회 개최지는 2년 뒤, APDSC(아시아

태평양농아인스포츠연맹위원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10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차이로 체육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제10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월 1일 아산시민체육관에

서 열린 이번 대회는 아산장복과 아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충청남도아산시중등특수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며 아산시, 아산시생활체육회, (주)한화아산 1,2사업장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오늘은 내가 우리 학교 대표!

### 아산장복, 제10회 아산시장애청소년체육대회 성료

이 자리에는 온양용화고등학교 등 아산지역 14개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응원 속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창호 관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 모두 다치지 않고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청소년들이 체육활동으로 신체발달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학생들을 비롯한 선생님, 부모님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쟁을 떠나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우정을 나누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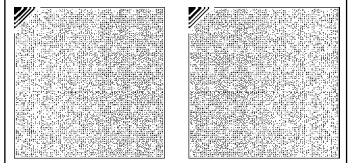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 등 여러 시의원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장애학

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이번 대회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응원단 ‘썬시아’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날 주인공인 학생들은 보치아, 지네발릴레이경주, 판 뒤집기, 단체 공주머니, 농구, 럭비공 굴리기 및 큰 공 굴리기, 풍선 서바이벌,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장애물 계주, 줄다리기 등의 종목을 통해 우정을 나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뇌파 장치로 척수장애인 보행 성공

## 근육에 전기자극...3.5m 이상 걸어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 어바인) 안 도 박사는 9월 24일 척수장애인이 뇌파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걷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다.

도 박사 연구팀은 하반신마비 척수장애인인 26세 남성이 자신의 다리 힘을 이용해 걸을 수 있도록 머리에 뇌파를 감지하는 장치를 씌웠다. 그 후 무선으로 컴퓨터와 연결했다.

착용한 장애인에게 걷는 생각과 서 있는 생각을 차례로 하도록 안

내한 뒤 각각 나오는 뇌파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연구팀은 또 어떤 전기 자극을 다리 근육에 가해야 자연스럽게 걷고 멈출 수 있는지도 연구했다. 시범 장애인은 19주 동안의 훈련 끝에 3.5m 이상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도 박사는 “뇌파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영화 아바타처럼 다른 공간에 있는 몸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장치의 원리를 설명했다. 전기신호인 뇌파는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나오는 공식이 있고, ‘선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공식이 있다. 컴퓨터는 이 공식에 따라 뇌파를 분석해 허리에 찬 전기 발생 장치로 명령을 보낸다. 전기 발생 장치는 양쪽 다리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 걸거나 서도록 했다. 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척수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이다.

한편 척수는 척추 속의 신경 다발

로, 뇌의 명령을 팔다리에 전달한다. 손상되면 전신마비와 하반신마비 등이 생긴다. 완전히 손상된 척수를 재생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이 걷기 위해선 다리를 감싸는 보조 장치를 붙이고, 이를 조종해 움직여야 한다.

도 박사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고무적이거나, 아직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기 힘들고, 제작비용도 비싸다”며 “상용화를 위해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뇌파 장치를 통해 보행에 성공한 척수 장애인. ©UCL News



모델 카니아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모노스키’ 출전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카니아 세서 인스타그램

‘다리 없는 모델’로 알려진 탄제리 모델 카니아 세서(23)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출전 의지를 강하게 내

## 평창동계패럴림픽 준비하는 장애인 모델

### 카니아 세서...모노스키 출전 의지 보여

비쳤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니아 세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지만 당당하게 15살에 스포츠브랜드 모델로 데뷔했다. 그녀는 자라서 탄제리 모델로 개성있는 활동을 이어나갔고, 현재 하루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카니아는 이동수단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다.

그녀는 “처음엔 스포츠웨어 화보로 시작했다가 탄제리 모델이 되었다”며 “이 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 사진들은 나의 강인함을 나타낸다”며 “다리가 없어도 sexy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녀는 2018 평창패럴림픽의 ‘모노스키’ 종목에 참가하려 훈련 중

이다.

그녀의 남자친구 브라이언 워터스는 “카니아는 지금껏 만난 사람 중 최고”라며 “언제나 그녀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 이외에도 양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모노스키 훈련을 하는 카니아에게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 시각장애인 위한 줄기세포 치료 시도

### 황반부 변성 장애인 대상 시술...12월 회복 여부 확인

영국에서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했다.

9월 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황반부 변성’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한 여인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반부 변성’이란 망막의 황반부가 노화되거나 유전적인 요인, 독성, 염증 등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되고, 심할 경우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 이번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는 노화로 인해 황반부 변성이 발생한 경우였다.

수술은 지난 8월 무어필드 안과병원 시행했고, 현재 시력 회복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시력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향후 18개월에 걸쳐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할 계획이다.

수술을 기다리는 10명은 스스로 치료를 신청한 환자들이다. 이들은 ‘황반부 변성’으로 최장 6주간의 기간을 거쳐 실명 상태에 이른 아픈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시력을 되찾을 희망을

갖게 됐다.

시력은 ‘망막색소상피층’이라고 불리는 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RPE’라고도 하는데 증식하지 않는 세포인 만큼 한번 손상되면 실명 상태를 회복하기 힘들었다. 무어필드 의료진은 이 문제를 실험실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로 해결하려 한다. 배양된 줄기세포를 패치 형태로 제작해 망막 내 손상된 부분 뒤쪽에 덧대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환자가 현재 습성(濕性) ‘황반부 변성’으로 인해 축축한 상태지만 점차 건성(乾性) 상태를 회복해



영국에서 황반부 변성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 중이다. ©가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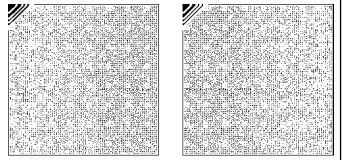
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는 70만 명이 넘는 실명자들이 있다. 이번 수술이 성공할 경우 다른 시각장애인 역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했다. 이번 수술은 런던대(UCL), 안과 협회, 국립보건연구원이 10년간 공동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한편 또 다른 연구진들은 ‘스

타가르트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질환은 1909년 스타가르트 박사가 처음 발견한 질병으로, 어릴 적에 나타나는 ‘황반부 변성’을 말한다.

이번 시술이 성공할 경우 불치병으로 알려진 ‘스타가르트 질환’ 역시 탄력을 받아 치료방법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지체장애이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경준



주차표지 불법사용(차량번호판과 주차 표지번호가 상이함)



주차방해 행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는 지난 7~8월까지 약 한달 동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퍼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점검이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7~8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보건복지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지난 2014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시설은 지난 2014년도 대상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의료시설,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추가한 총 5,000여 개소였다. 특히 최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요일이나 시간대에 실시하였고, 점검 항목은 <표1>에서 보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사항(설치위치, 통로단차, 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등)과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불법주차 등이다.

왼쪽 점검 결과 <표1>을 보면,

가장 부적정한 설치율을 보인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으로 34%에 가까운 시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첫째 원인은 건축주나 시공자 등이 아직도 제대로 된 접근성 표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는 '편의증진법' 및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접근성 표지를 그려놓은 시설이 다수 있었다.

다음 원인으로 준공 당시 기준에 맞게 제대로 그려놓았다 하더라도 추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바닥표시가 희미해지거나 지워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부적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빈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원칙상 '주차가능' 표지를 비치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점검 결과 <표2>와 같이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위반자들은 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지만 잠시만 정차했다 이동하려 했기에 잠깐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건물 출입구와 가깝고 어차피 비어있는 곳이며, 달리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했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만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므로 만일 비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차량을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점검 결과를 비교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해가 바뀌어도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반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를 두고 혹자는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이 낮기 때문이라며 과태료를 올려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작정 과태료 금액만 올린다면 분명 반발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 증액 대신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장애인이 보다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될 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점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주차구역 일반사항 점검	주차표지 및 불법주차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li> <li>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li> <li>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li> <li>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li> <li>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li> <li>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li> <li>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li> <li>비장애인차량</li> <li>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경우</li> </ul>

<표1> 점검 항목

일반 점검 사항	적정(%)	부적정(%)
1. 출입구 등과 가장 가까운 위치	90.4	9.6
2.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유효폭 확보 여부	85.6	14.4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84.6	15.4
4. 주차공간 바닥면 높이차	95.2	4.8
5. 주차공간 바닥표면	95.8	4.2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66.1	33.9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 확보 여부	90.1	9.9
위반 유형별 현황	위반건수	비율(%)
8. 주차표지 위·변조	40	5.4
9. 주차불가표지 차량 및 비장애인 탑승	63	8.5
10. 주차표지 불법대여	9	1.2
11. 비장애인 차량(주차표지 없음)	612	82.9
12. 주차방해	14	1.9
합 계	738	100

<표2> 점검 결과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



며칠 전에 소규모 제조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35세의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이모 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담내용은 하루에 4시간씩 토요일까지 한주에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은 연차휴가가 정말 없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피상담의 경우 근무한지 1년 4개월이 되었지만 여름휴가 3일과 공휴일 외

에는 쉬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때때로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해고당할까봐 참고 일했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있다.

단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처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

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계산식 [1일\*(24시간/40시간)\*8시간]에 따라 1월에 4.8시간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둘째, 의뢰인의 경우처럼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계산식 [15일\*(24시간/40시간)\*8시간]에 따라 1년에 72시간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8

시간을 기준(통상근로자의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으로 해야 하며, 이를 4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1주에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60%(24시간/40시간)를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에게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에 비례하여, 8시간의 60%인 4.8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II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임금(일급)

연차수당 계산법. ©조호근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임신관련 상담(II) 지원제도

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Q) 앞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제공되나요?**

**A)**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하여는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4명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우울증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Q) 의료상담은 현직 의료진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입니까?**

**A)** 그렇습니다.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

상담은 대학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교수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난임의 원인 및 검사와 진단, 치료방법 등 부부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난임부부가 난임을 치료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로 나타남에 따라, 난임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가 가능해져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A)**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의 난임상담 메뉴로 들어오면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아가사랑 → 상담 → 난임상담 → 심리상담/의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가사랑 모바일 웹(m.agasarang.org)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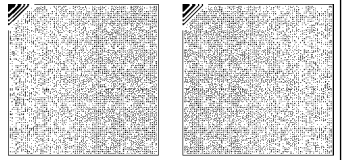
특히 심리상담의 경우 온라인 상담 이외에 전화상담 ☎1644-7382(출산빨리) 또는 대면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아가사랑' 사이트를 방문하면 난임 치료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답변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담서비스를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 받는 부부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요?**

**A)** 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 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06년부터 자녀를 갖길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양성

##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직무 개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생활체육 보조코치’로 활동하며 다른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고용 및 시험고용 연수과정에 참여한 연수생 김○○(해치서울 FC 소속 발달장애인 축구선수, 지적장애 2급)씨가 포부를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 이하 체육회)는 발달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새로운 전략 직무로 ‘생활체육 보조코치’를 개발하여 고용으로 연계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체육 보조코치’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과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업영역 개발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완화시킨 것으로, 입상 경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메인 코치를 보조해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선수 활동 종료 후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운동을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단과 체육회는 이번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업영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4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육상) 5명의 발달장애인을 선발했고, 이들에게 구

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직무능력 평가 등을 진행해 왔다.

선발된 발달장애인 5명은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체육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현장에 배치되어 ‘생활체육 보조코치’ 시험고용 연수를 받는다. 그 후 체육회의 인턴과정을 거쳐 취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 개발과 고용 창출 사례는 발달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타 시·도 체육회로 사례가 확산될 경우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금융권 장애인고용부담금 110억 원

### 5개 은행 장애인 고용 기피 벌금 때우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총 11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10월 1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주요 은행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25억 3,200만 원을 냈다. 이어 국민은행 25

억 원, 신한은행 23억 3,700만 원, 농협은행 19억 6,500만 원, 하나은행 16억 7,500만 원 순서였다.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은 상시 근로자 8660명 중 23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57명(0.7%)에 불

과했다. 우리은행도 0.91% (398명)에 그쳤고, 신한은행(0.95%), 국민은행(1.33%), 농협은행(1.38%)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민간 기업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며 “이들 은행이 사회에 공헌하는 가장 빠른 길은 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1. 지난 10월 8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지체장애인체육발전 및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창립수순에 들어간 이 단체 이름은?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15년 권역별 장애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민원상담 멘토

#### 당첨자

전남 목포시	전동철
경북 칠곡군	김진성
충북 청주시	임우연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채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넨품, 담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렌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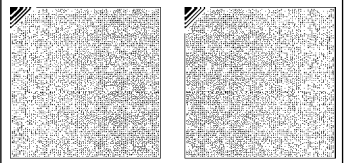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윤리를 생각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송경주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14년 7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포함한 미래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한다. 그렇다면 단체, 기업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경영이란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윤리경영이란 막연히 ‘기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에서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과 가치를 나누어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규범 사

례 등을 살펴봄 윤리경영을 고민해 본다.

## 가. 사무용품의 사적 사용

Q> 고등학교 동창회장인 C사원은 전체 회원에게 모임 공지를 팩스로 보내려고 한다. 그는 집에 팩스가 없어 회사 팩스로 공지를 보내다 김 부장에게 주의를 들었다. C사원은 업무시간이 끝나고 한 일인데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윤리강령을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을 사용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한다.

A> 회사 용품은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고교 동창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 나. 업무용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적 사용

Q> 해외 출장이 많은 C사원은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로 일본

항공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사용할까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한다.

A> 이러한 사항이 윤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회사차원에서 좋은 일에 쓰도록 생각해 보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행자부 공무원의 공무로 얻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못 쓰고 공무로만 쓰기로 했다.

## 다. 고객 바자회

Q> C사원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웃돕기 바자회를 준비하던 중 평소에 갖고 싶었던 시계가 바자회 물건으로 적당한 가격에 나온 것을 보았다. 어차피 누군가 사게 될 물건이므로 본인이 구입해 그에 맞는 가격만 지불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A> 일반 시민의 참여 유도 등 행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 구성원이 사전에 선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라. 술자리 에티켓

Q> 회식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은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줘야 술맛이 난다’며 술잔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C사원도 장난스럽게 여직원에게 술잔을 채워달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장난으로 건네는 말들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한다.

A> 직장 동료들은 사심 없이 권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다. 회식에서 상사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에 포함된다.

## 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사례1>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장애인근로자 A씨에게 사업장 대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다시 A씨에게 본래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다 하고 다시 받는 수법으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만들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사업장 대표는 이렇게 받은 고용장려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어차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받는 것이고 추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합의했다. 사업장 대표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어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례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득이 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문서조작을 통해 정부 예산을 받아 나눈 사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사례2> 근로하지 않은 장애인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는 사례

– 시간급으로 근로하는 장애인 B씨. 그러나 보육문제로 매일 30~40분씩 늦게 출근하게 됐다. 고용주도 B씨의 상황이 안타깝고 열심히 근무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출근 및 만근으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 역시 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진행한 일이지만,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서류조작을 통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소한 일부터 큰 상황에 이르기까지 윤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윤리는 공공의 이익에 기반을 둔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1’의 경우 근로자와 대표 모두 이익이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은 금액이나 작은 특혜라도 어느 한 사람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다른 누군가 혹은 공동체가 떠 앉게 된다.

비록 적은 금액과 상황이라도 해당자만 이익을 취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공공 이익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운 윤리의 기준에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때 비로소 ‘윤리경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이에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조직운영 또한 포함됐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공공의 가치기준과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윤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조직문화가 바탕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게 된다. ‘나 하나 정도는’ ‘이것쯤은’ 하는 생각이 작은 틈을 만들고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일터에서 윤리라는 단어가 필요없을 만큼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 100문 100답〉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9호 2015년 10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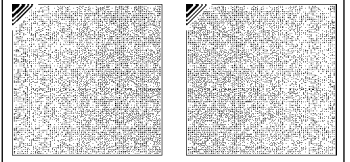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dd.or.kr E-mail : news@kapd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일상 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이나 보협가입 거부 등 수많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슈가 되는 큰 사건들만이 장애인차별의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작은 차별들이 장애인의 활동에 더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법사용이라 할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내가 직접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더라도 나의 업무 소홀이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업무를 미시하는 경

우가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주차구역 단속을 소홀히 하는 곳들은 대부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편의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며 누구나 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일하게 장애인만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용주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한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된 비장애인들에게조차 지원하지 않는다. 그만큼 장애인의 이동권이 일상생활에서 주는 역할이 크고 장애인이 다른 선택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인권침해행위이며 주차단속을 소홀히 한 업무 담당자 역시 장애인차별행위를 했음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장애인의 보장에 대한 이해부족 사례이다.

서구문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문화이다. 이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결하지 못하다고 인지한다. 그러나 이를 장애인의 보장구에까지 적용하여 휠체어나 목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의 실내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다른 의료기기의 파손 등으로 인해 큰 피해까지 주기도 한다.

마지막 사례는 승강기 사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다. 2층의 경우 일반인은 대부분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장애인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일부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에게 승강기사용료를 2배로 지불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승강기에 대한 물이해에서 온 경우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5층 이하의 건물에서도 승강기를 접할 수 있다.

또 승강기설치가 점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승강기 사용이 이토록 활성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이처럼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물이해 또는 내가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나의 행위로 인해 장애인차별이 묵인되는 경우도 바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들은 비록 피해자가 소수이거나 극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 장애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관련 활동들이 보다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그리고 지방자치지역 구석구석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새보람 칼럼

손영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 조직과 회원의 역량 강화 필요

서는 지장협'이란 비전과, '민주적·안정적 조직운영,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 위상 복원, 미래지향적 장애인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향상과 역량 강화'를 4대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공표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지장협'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지장협'은 기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신규 회원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이는 정관 제8조 2항에 의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하는 정회원 확대와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애착심을 갖게 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체로 이루어진 '지장협'의 근간이 회원인 만큼 회원의 역량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지역별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수혜자적 입장이고,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아닌 수 년 전에 가입한 조직 명부상 회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질과 역량을 갖춘 회원들을 각 조직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며 인재난을 겪고 있는 '지장협'에 물꼬를 트는 혁신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의 그릇의 크기는 자신보다 똑똑한 부하를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다. 우리 협회 산하 각 조직에도 자질과 역량있는 회원들이 많이 동참하여 그릇이 큰 지도자가 넘치는 '지장협'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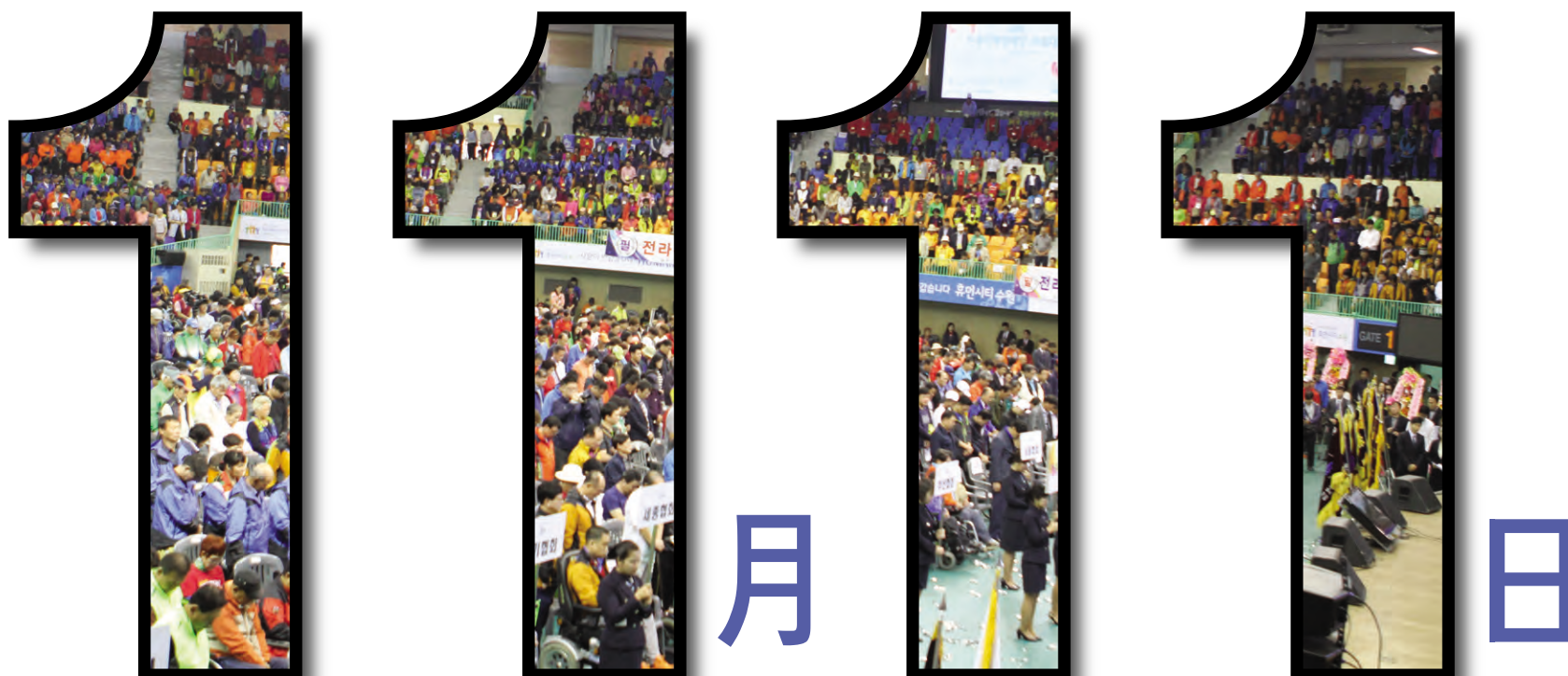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비해 변화에 따른 기득권 상실감은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득권자와 기득권 상실자들은 서로 간에 이간질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을 가려내어 단호하게 몰아내야 한다.

우리 '지장협'은 지금 내부의 시련과 외부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로 위상을 복원해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만들어야 한다.

'지장협'의 주인은 회원이고 우리는 회원을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지난 해 7월 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새로운 미션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사자단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지장협,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



# 2015 지체장애인의날 기념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National Conven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1986년 11월 11일은 국내최대의 장애인단체이자 대표적 단체인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창립을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 날입니다.

‘1’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찬 출발을 의미합니다.

‘1’字의 형상은 직립(直立)을 뜻하며,  
지체장애인들이 똑바로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고픈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고,  
굳은 정신을 지향하여 힘차게 일어섬을 의미합니다.

‘1’은 첫째, First를 의미하는 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일(第一)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가족과 우리 이웃, 나아가 사회전체를 제일의 소중한 가치로 여김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를 염원하는 우리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